

동물모양 허리띠고리 動物形帶鉤

이나경 | 104호 부여 · 삼한실 | 18:00~18:30

허리띠고리[帶鉤]는 허리띠를 장식하는 데 사용하는 고리쇠로, 형태에 따라서 몸통과 고리가 가늘게 이어지는 곡봉형曲棒形과 몸통 부분이 넓어지는 비과형琵琶形, 몸통 부분을 동물형태로 만든 동물형動物形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주로 동물모양 허리띠고리[動物形帶鉤]로 분류되는 호랑이모양 허리띠고리[虎形帶鉤]와 말모양 허리띠고리[馬形帶鉤]가 출토되는데, 이러한 동물모양 허리띠고리는 일부 일본에서 출토되는 예를 제외하고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만 출토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토 지역은 크게 동남부지역과 중서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부지역에서는 호랑이모양 허리띠고리와 말모양 허리띠고리가 모두 확인되며 중서부지역에서는 말모양만 출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청주 오송 유적에서 호랑이모양 허리띠고리 3점이 출토되어 중서부지역에서도 더 많은 수의 호랑이모양 허리띠고리가 출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 지역의 동물모양 허리띠고리는 형태가 유사하지만 문양 구성과 시문방법 등에서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남부지역에서는 얼굴과 목, 등, 엉덩이, 격판 등에 집선문, 삼각점열문 등의 문양을 음각으로 새긴 것이 주를 이루고, 중서부지역에서는 등과 격판에 격자문을 양각으로 새긴 것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동물모양 허리띠고리는 대부분 무덤에 부장된 것으로, 무덤의 구조 또는 공반 유물의 종류와 형태로 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동남부지역은 대구 비산동 유적, 영천 어은동 유적 등 금호강 유역을 따라 기원전 2~1세기경 가장 먼저 동물모양 허리띠고리가 확인되기 시작한 지역입니다. 이후 기원후 2세기경이 되면 김해와 밀양 등과 평택, 아산 등과 같은 중서부지역으로 분포 지역이 확대됩니다. 이 시기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되는 동물모양 허리띠고리는 동남부지역 출토품과 공통점이 많아 두 지역 사이의 교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이후 동남부지역에서는 동물모양 허리띠고리가 소멸하고, 중서부지역에서는 추상화되거나 문양이 사라지는 무문양의 말모양 허리띠고리가 중심을 이루다가 기원후 4세기 경 소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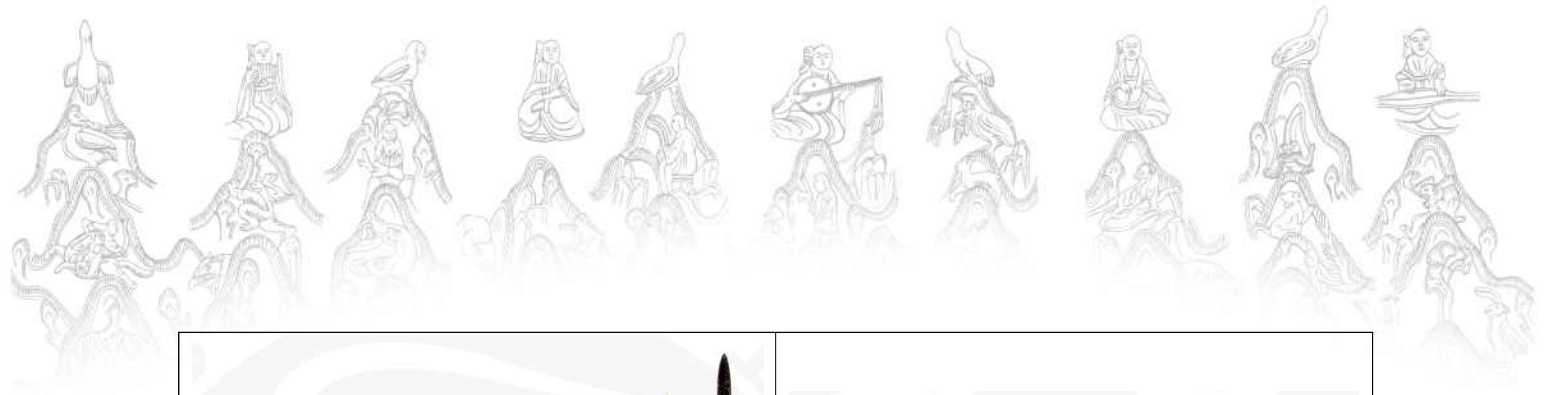


그림 1. 대구 비산동 유적 출토 유물



그림 2. 영천 어은동 유적 출토 유물



그림 3. 경주 탑동 출토 호형대구



그림 4. 천안 청당동 5호분 마형대구 출토 모습



그림 5. 청주 오송 유적 출토 호형대구



그림 6. 청주 오송 유적 출토 마형대구



제66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0월 23일)

옥호정도, 권세의 정원

이재호 | 202호 서화실2 | 18:00~18:30

차곡차곡 접은 두꺼운 종이를 펼치면 세로 150.3cm, 가로 193.0cm의 커다란 그림이 나타납니다. 서울 북악산北岳山 자락 넓은 터에 들어선 별장, 옥호정玉壺亭을 그린 그림입니다. 담장 밖 개울물은 세속의 소음을 씻어주고, 뒤뜰 바윗돌에 새긴 옥호동천玉壺洞天 네 글자는 신선 세계로 안내하는 문이 됩니다. 궁궐을 바로 가까이 둔 도시의 한복판에 고아한 원림園林이 홀로 다른 세상인양 펼쳐져 있습니다. 옥호정은 순조純祖(재위 1800~1834)의 빙부聘父였던 풍고楓臯 김조순金祖淳(1765~1832)이 여러 해에 걸쳐 꾸민 별서別墅였습니다. 정원에 심은 모란과 파초, 시령을 타고 오른 포도 나무에 이르기까지 김조순의 애정이 담긴 듯 느껴집니다. 백련봉白蓮峯에 올라 아침 해를 맞이하고 때로는 정자에 앉아 문인들과 시를 지었던 주인의 생활이 그림 속에서 떠오릅니다.

옥호정은 오늘날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133번지 일대에 자리했습니다. 김조순은 1804년에 옥호정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정원 안에 있는 큰 암벽에 을해벽乙亥壁이라는 글씨를 1815년에 새겼으므로 10여년에 걸쳐 건물과 정원을 꾸민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조순의 집은 안국동에 있었지만, 옥호정을 따로 지어 별서로 활용했던 것이지요. 옥호정에서는 많은 시회詩會가 열렸습니다. 19세기 전반의 많은 문인들이 옥호정에 초대되어 시를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효명세자孝明世子(1809~1830)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외조부의 별서를 방문하고 그윽한 경치를 노래한 시를 남겼습니다. 효명세자는 옥호정과 같은 문인 별서를 동경했습니다. 창덕궁 후원 호젓한 공간에 의두합倚斗閣이라는 소박한 기와집을 지어 독서하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내로라하는 경화세족京華世族들은 변화한 한양 도성 바로 곁에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별서를 꾸미고 문예를 즐기는 문화를 향유했습니다. 북악산 북쪽 자락에 있었던 백석동白石洞 별서, 인왕산 북쪽 자락에 있었던 삼계동정사三溪洞精舍 등이 대표적입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1820~1898)은 김흥근金興根(1796~1870)의 삼계동정사를 빼앗아 석파정石坡亭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저택을 탐낸 것이라기보다 안동김씨로 대표되는 세도가의 별서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성에서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신선처럼 자연을 벗삼아 독서하고 문예를 닦는 이상적인 문인의 삶이 <옥호정도>에 깃들여 있습니다.

가야와 신라, 국제적 관점

윤운식 | 107호 가야실 | 19:00~19:30

가야는 공존입니다. 여러 가야가 함께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여러 나라가 각축을 하던 삼국시대는 가야호로 통합을 원했습니다. 신라는 진한의 소국을 통합하여 중앙집권화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존의 왕국 가야는 통합을 추구한 신라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뭉쳤기 때문이요, 철을 다루는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가락국을 세운 김수로, 거친 바다를 헤치고 가락국에 온 허황옥은 모두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바다를 끼고 교류하던 가야에는 이국異國의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살았고, 다양한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를 끼고 세계 여러 곳과 교류하였기 때문이며, 거기에 철이라는 귀한 수출품이 있었습니다.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독자적으로 대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듯 가야의 고분군에서는 중국을 비롯하여 왜, 신라, 백제, 고구려 등과 교류한 증거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가야는 각기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주변 나라들과 외교적 관계를 독자적으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토기는 가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비슷한 형태의 토기들이 각자의 개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굽다리접시만 보더라도 바깥으로 벌어진 입을 가진 가락국(금관가야), 불꽃무늬의 구멍으로 장식한 아라국(아라가야) 등 작은 차이지만 제각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림 1. 손잡이를 붙인 화로모양 토기, 가락국, 4세기

특별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15) 로마 문화에 남은 에트루리아

노희숙 | 기획전시실 | 19:00~19:30

에트루리아는 건축, 종교, 문자, 복식 등 다양한 방면에서 로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아르카익 시기부터 로마에 정착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일곱 명의 왕이 로마 제국을 통치했는데, 이들 중 마지막 세 명의 왕이 에트루리아와 관련된다고 합니다. 에트루리아 왕이 로마를 통치할 때 기존의 웅기종기 집들만 모여 있던 로마의 외관을 포장된 도로, 광장, 수로시설, 대규모 사원을 갖춘 도시 형태로 정비하였습니다. 종교적 영역과 권력의 상징성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기 47년, 로마 황제는 미래를 예언하는 에트루리아인들의 행위를 이탈리아 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규범으로 정의하고, 이를 로마에서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종교를 상징하는 많은 표상 역시 에트루리아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X자 모양 의자, 사법권을 상징하는 표상 등은 처음에는 로마 황제들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관할 구역을 관리하는 총독 등도 사용하였습니다. 로마의 사제들이 일종의 상징으로 사용했던 구부러진 지팡이 역시 에트루리아의 종교 전통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 로마는 제국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으며 에트루리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기원전 396년 로마가 베이오를 최초로 함락한 이후, 에트루리아의 다른 도시들 역시 점차 로마에 점령당했으며, 그 결과 에트루리아는 로마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에트루리아가 멸망한 이후에도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서로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림 9. 에트루리아 상징이 묘사된 유골함, 1세기, 높이 27.0cm, 구아르나치 에트루리아박물관



그림 10. 루니 신전의 페디먼트, 기원전 2세기, 높이 105.0cm(오른쪽), 피렌체국립고고학박물관